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촌사람이 모처럼 서울에 올라갔다... 촌사람이 모처럼 서울에 올라갔다...

촌사람의 서울 구경

좌상이 나타났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태양은 이순신 장군의 뒷머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기묘한 물체가 나타났다. 나선 달팽이 모양의 그 조형물은 말로만 들던 올덴버그의 '스프링'이라는 작품이었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민국(조선이 아니다)의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정치인과 언론, 극우단체가 관사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고단한 민중의 역사...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잡러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 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 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국연



최근 일본 후생 노동성 사회 보험청이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광주전남지역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당시 액면가보다 99엔을 지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 '99엔' 침묵 왜?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할머니들의 상실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다. 99엔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다. 혹자는 99엔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에 부여한 국격(國格)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기부문화 확산위해 제도적 보완·지원 필요

얼마 전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 최근 조사에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기부에 동참해 봤다는 비율은 턱없이 적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고

문상필



며칠 전 백령도 앞바다를 포성이 뒤 흔들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큰 무력충돌도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한 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통일을 대비하는 광주는...

하면서 남북 간 충돌이 빈번해지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규모의 충돌로 소중했던 우리 군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었다. 비록 NLL이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감정상 한 치의 땅과 바다도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은행 ATM기기 시각장애인용 설치 의무화 했으면

은행의 ATM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기계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존재다. 시각장애인에게서는 이어폰을 연결하여 안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음성지원시스템과 점자형 키패드가 필요한데 이를 갖춘 곳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시설

지방선거 벌써부터 불·탈법이라니

6.2 지방선거가 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 8표제'로 치러지며 광주·전남지역에서 1천여명에 이르는 후보자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돈선거의 악몽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다. 중도 하차한 두명의 전직 군수도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문제가 됐다.

'무늬만 경제자유구역' 개선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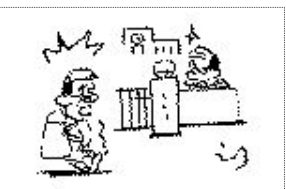
광양만 등 전국 6곳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된다. 발전전략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호텔업으로 제한돼 무역과 금융 업종 위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같은 인센티브를 국내 관련기업에도 부여해야 한다.

無等鼓

'빵 서클'. 학교 폭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세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빵 서클은 이른바 '일진' 학생들에게 매점에서 빵 사부름을 해주는 학생들을 일컫는 은어다.

빵 서클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해 빵 서클과 같은 강요 행위를 한 학생이 적발되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해 전화·퇴학 등의 징계 수행평가를 대신해주는 '수행평가 서클', 안마를 해주는 '안마 서클'도 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본부장: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